

일제강점기 소설 속 하층민 아편중독자 표상 연구

: 모성을 중심으로

김주리*

차례

1. 서론
2. 중독자 아들과 육친애
3. 중독자 남편과 히스테리
4. 중독자의 모성과 파시즘
5. 결론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20년대 이후 하층민 중독자 표상이 드러난 작품들을 특히 모성과의 관계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소설 속에서 중독자 아들에 대한 육친애, 중독자 남편에 대한 폭력과 모성의 히스테리, 중독자의 모성과 돌봄의 송고를 드러내고 그 의미를 평가할 것이다. 훈육을 통해 가부장제 사회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데 이바지하는 모성애와 달리 보호와 양육에 집중하는 어머니의 돌봄은 육친애로 나타나며, 채만식의 「불효자식」은 중독자 자식을 향한 혐오스러운 육친애를 형상화한다. 중독자-남편을 둘러싼 서사에서 모성은 최정희의 「곡상」과 강경애의 「마약」에서 보듯 돌봄보다 훈육을 강조하며 폭력적 서사와 죽음의 이미지를 가져온다. 김사량의 「지기미」는 아편중독자 노인이 아편을 권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돌봄이라는 모성의 자질을 발휘하는 송고의 서사를

* 한밭대학교 교수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하층민 아편중독자의 표상은 모성과 결부되는 가운데 혐오스러운 육친애와 폭력을 낳는 히스테리, 중독자의 돌봄이라는 역설을 통해 식민지 가부장제 근대 사회의 정상성에 균열을 가져오는 다양한 서사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핵심어 : 하층민 아편중독자 표상, 모성, 육친애, 히스테리, 혐오와 숭고

1. 서론

“阿片은 양귀비란꽃에서나는 진으로 되는것이며 이것이 이世上에서그 以上가는 것이 없는 靈藥”으로서 “使用方式에잇서 사람의危急한 生命을 구하는데 업지못할것이며 아즉까지 그以上가는 貴中하고神通한 藥을 發見치 못”한 것이지만 “그反面에 그藥으로하야 몸을망치고 집안을破하고 社會에나스지 못하는 사람을만드는 至極히 미워야하고 업새버리지안으면 안될 무서운 癡藥”¹⁾이다. 세상에 다시없는 영약인 동시에 몸과 집안과 사회를 망치는 마약이기도 한 아편(모르핀)의 이중성은 우리나라 근대소설을 통해 다양하게 재현되어 왔다. 앵속(罌粟) 또는 따옌(大煙)이라는 이름을 가진 양귀비의 씨방에서 나오는 진액이 “검은엿처럼 되는 것을 손으로 잘 만져서 벽돌장만큼씩 크게 덩이를 만들고 유지에다가 잘 싸서 매매를 하는데 그것이 아편이요 거기서 다시 정제하여 소금가티 하얀 가루를 만드는데 그것이 모루히네”²⁾로서, 이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서 침략의 상징이며 근대화의 어두운 측면을 집약하는 장치이다. 1920년대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아편은 총독부의 목인 하에 밀매를 통해 조직적으로 유통되었고³⁾ 급격하게 증가한 아편중독자들은 개인을 너머 국가와 민

1) 一記者, 『法律이 公許한 阿片中毒者 治療所』, 『별건곤』 67호, 1933.11, 23쪽.

2) 南隊記者 石火生, 『顯賞讀物 南北隊 競爭記事, 殺人魔, 自身鬼 阿片窟 大探查記, 烈風酷寒七晝夜에 單身으로 冒險大探查』, 『별건곤』 4호, 1927.2, 65쪽.

죽을 망치는 ‘폐물’로 간주되었다. “阿片中毒者라는명층을듯는 그사람은 자신을 망친지오랜 사람이오. 집을 망쳤고, 社會에서 버림을당한 사람이 라기보다도 가련하고밑살마즌 貨幣物이다.”⁴⁾

한편 영약에 중독된다고 하는 모순은 서양 근대 과학 문명 또는 제국 문명의 침략과 점령으로 피폐해가는 식민지의 현실을 환기시킨다.⁵⁾

朝鮮에잇서서의 『모루히네』는 中國에서의阿片과마찬가지의 政策的또는 生理上의 作用을하고있는 것은 事實이다. 이것을 一言으로 證明함에는 먼 저그 『모루히네』라는 藥品이 阿片煙과 똑같은作用으로 惑은그보다 더 怪惡한 作用으로 사람의肉體와 精神을 滅亡하는것과 그藥品의原產地가 日本인것과 그藥品이 正當한 輸入手續을 밟지안코 年年多量の密輸入이그들의손으로되고 그密輸된藥品은正當한 藥用에供用되지안는 것이 勿論인⁶⁾

조선에서의 모르핀 중독자 양산 과정은 흔히 중국에서의 아편중독자 양산에 비견되는데, 이는 침략자인 제국 일본의 정책적 음모가 공통으로 개입하는 까닭이다. 일본이 대륙침략을 위해 아편을 중국에 밀수하듯 조선에서는 모르핀이라는 약품을 밀수해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함으로써 수많은 중독자를 낳는다. 이런 점에서 조선의 모르핀 중독 문제는 식민지의 암울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즉 모르핀 중독자는 단순히 병자나 범죄자가 아니라 침탈당한 민족 전체, 훼손당한 민족성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로까지 상승한다.⁷⁾ “다만 그것을 한번 몸에붓침으로써 餘地업시 敗

3) 우리나라는 원래 아편 청정국이었으나 일본이 대륙 침략 자원 마련 등의 목적으로 조선에서 약용 양귀비를 재배하고 과잉 생산된 아편제의 소비를 유도하면서 20년 대 이후 급격하게 중독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박강, 『20세기 전반 동북아 한인과 아편』, 선인, 2008, 110~112쪽 참고

4) 一記者, 「法律이 公許한 阿片中毒者 治療所」, 『별건곤』 67호, 1933.11, 23쪽.

5) 19세기 말 화학과 약학 분야의 발전에 힘입어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은 중독성 강한 합성물질이 개발되고 피하주사법까지 발명되어 마약 중독 문제가 더욱 심각해 졌다. 마이크 헤스킨스, 『마약』, 이민아 역, 뿌리와이파리, 2005, 10쪽.

6) 自影生, 「모루히네雜考」, 『신민』, 1927.9, 31쪽.

家亡身을스서로 招致하는 癡藥”(31)이라는 인식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성의 훼손이라는 정치적 의미가 덧씌워지기에 가능한 것이다. 도시 뒷골목 담벼락에 기대어 아편침을 찌르고 널부러진 ‘자신귀(刺身鬼)’의 존재야말로 식민지 근대화의 어두운 현실을 집약하는 대상이다.

일제 강점기 소설 속 아편 중독의 의미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30년대 후반 이후 만주 배경의 지식인 중독자 소설들을 주로 다루어왔다.⁸⁾ 이와 달리 본고에서는 20년대 이후 하층민 중독자 표상이 드러난 작품들을 특히 모성과의 관계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⁹⁾ 모성, 즉 어머니의 역할과 자질이란 중독자의 부도덕과 이기심에 대조되는 순수한 희생이나

- 7) 서구에서는 모르핀이 여성의 약물, 아편이 남성의 취미로 간주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베리 밀리건, 샌더 길먼 외, 『흡연의 문화사』, 이수영 역, 이마고, 2006, 187~190쪽 참고) 반면 우리나라에서 아편과 모르핀은 많은 경우 혼동되며 자신귀(모르핀 중독자)와 모르핀은 아편에 비해 가볍게 취급된다.
- 8) 기존의 연구로는 현경준의 「유맹」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에는 「유맹」을 친일문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이선옥, 「협화미담과 금연문예에 나타난 내적 갈등과 친일의 길」,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 2004; 이경훈, 「아편의 시대, 아편쟁이의 시대」, 『사이間』 4, 2008 등과 이를 저항문학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조진기, 「만주이주민의 현실왜곡과 체제순응」, 『현대소설연구』 17, 2002; 신정은, 「현경준 작품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과 대응양상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8, 2011; 오상순, 「표면구조에서의 국책 선전과 심층구조에서의 허구성 비판」, 『현대문학의 연구』 36, 2008; 표언복, 「타락한 시대의 타락한 글쓰기 방법」, 『현대문학이론연구』 47, 2011 등 외에도 제3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차성연, 「현경준의 「유맹」 연구」, 『한국문학논총』 53, 2009; 서은주, 「만주국 재현 서사의 딜레마, 혹은 해석의 난경」, 『한국근대문학연구』 22, 2010; 차희정, 「현경준 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회복과 공간의 의미」, 『한중인문학연구』 40, 2013; 노상래, 「헤테로토피아, 제3의 눈으로 읽는 만주」, 『인문연구』 70, 영남대인문학연구소, 2014 등이 있다. 만주 배경의 중독자 표상 연구(남춘애, 「해방 전 중국 유이민 소설에 나타난 아편의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7, 2007), 아편중독자가 드러나는 특정 소설에 대한 연구(이에는 「사랑과 죄」를 중심으로 한 김학균, 「「사랑과 죄」에 나타난 아편중독자 표상 연구」, 『국제어문』 54, 2012와 경성 배경 소설로서 김남천을 언급한 박장례, 「경성 배경 아편 서사의 인물과 공간 표상」, 『서울학 연구』 13, 2013.11가 있다.) 등이 있다.
- 9) 현경준의 「유맹」은 지식인 중독자를 그리지만 모성과 관련한 부분만을 취하여 논문에서 다룬다. 이 글에서 ‘모성’은 돌봄과 양육, 훈육 등 어머니 역할과 자질의 의미로 사용한다.

인내의 윤리로 존재한다. 그와 함께 어머니와 하층민, 중독자는 모두 가부장제 자본주의 근대사회에서 이성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감성, 자연, 본능 또는 광기라는 측면과 연관된다. 본고에서는 하층민 아편중독자 표상과 모성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밝히도록 하겠다.

2. 중독자 아들과 육친애

사라 러딕은 어머니 역할에 따르는 관점과 인지 능력, 태도 등을 보호와 양육, 훈육이라는 세 측면으로 다루며 그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서술한다. 러딕에 따르면 보호와 양육은 유사한 활동으로 보존애(preservatve love)와 관련된다. 즉 보호(양육)는 윤리적 판단 이전에 주어지는 것으로, 자식에 대한 예의주시(scrutinizing)와 통제불가능한 세계에 대한 겸손(humility), 이에 따른 변화의 수용이라는 자질을 중시하는 돌봄을 나타낸다. 이와 달리 가부장제 사회에서 어머니는 자식을 사회에 필요한 인간으로 훈육하는 존재로서 모성애를 강요받는다. 어머니는 가부장적 권위에 복종해 집단이 허용하는 행동을 자녀에게 훈육한다. 훈육은 간섭과 통제의 문제로서, 훈육하는 모성은 파시즘적 통제와 폭력의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¹⁰⁾ 이와 달리 보호와 양육에 집중하는 어머니의 애정은 보존애의 과잉에 따른 육친애로 나타나기도 한다. 훈육을 통해 가부장제 사회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데 중점이 놓이는 모성애와 달리 육친애의 모성은 자신의 육친인 자식에 대한 절대적 애정이라는 점에서 파괴적인 성격을 갖는다.¹¹⁾

10) 사라 러딕, 『모성적 사유-전쟁과 평화의 정치학』, 이혜정 역, 철학과현실사, 2002, 143~181쪽 참고.

11) 육친애란 자아의 상실 상황에서 오는 일종의 나르시시즘적 자아회복행위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여성의 사랑은 나르시시즘으로, 여성이 대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 모성이다.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분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런 모성은 대상애라기보다 자기 나르시시즘의 연장이다. 임옥희, 『사랑: 그리

현경준의 「유맹」 계열 서사¹²⁾에서는 아들의 아편 중독을 고치기 위해, 즉 훈육을 위해 “네가 옛날과 같이 다시 제 길로 들어서지 않는 한 절대로 만나 보시지 않으시겠다”¹³⁾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생각에는 여러해만에 만난 둘은 반다시 역풍에서 서로 붓잡고 울줄로 짐작했던 것이 기대한것과는 판관으로 싸늘한 그모양에 일종의실망까지 느꼈다.

그러나 소장은 둘의속을 죄다 엿보고 얼마나 엄격한 어머니인가를 절실히느꼈다.¹⁴⁾

「도라오는 인생」에서 아편중독자 명우의 어머니는 엄격하고 싸늘한 존재로 그려지며, 만남을 앞두고 명우는 차가운 어머니의 모습에 대한 악몽까지 꾸다. 그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독을 용납하지 않으며 아들을 ‘제 길로 들어서’게 한다는 윤리로서 아들의 삶을 통제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은 다른 부락민의 시선에 실망스러울 정도로 싸늘하고 이상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가부장적 권위를 대변하는 보도소장의 눈에 그것은 엄격하고 강인한 참된 모성애로서 공감된다.

엄격한 어머니와 보도소장의 훈육에 의한 지식인 중독자의 교화를 그리는 「유맹」과 달리 채만식의 「불효자식」은 지식인 남성 서술자의 시선에서 고향 친구인 아편쟁이 칠복의 타락과 그 어머니 최씨의 광기어린 육친애를 그린다.¹⁵⁾ 대학생인 ‘나’의 시선에 그들의 육체는 혐오의 이미

고 그 너머에 있는 욕망,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2003, 35~39쪽 참고

12) 1940년 7~8월 「인문평론」에 발표된 「유맹」은 장편소설 「도라오는 인생」(1941년 만선일보 연재)과 『마음의 금선』(홍문서관, 1942)으로 개작된다.

13) 현경준, 「유맹」, 『한국소설문학대계』 25, 동아출판사, 1995, 470쪽.

14) 현경준, 「도라오는 인생」, 『20세기 중국 조선족 문학사료 전집 6』, 중국조선민족문화예술출판사, 2004, 390쪽.

15) 「불효자식」은 채만식의 등단작 「세 길로」 다음에 발표된(『조선문단』 2권 10호 1925) 소설로서, “아편쟁이의 생리를 잘 묘사해서, 본인이 혹 아편쟁이가 아니었나 하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채만식, 「불효자식」(『채만식전집』 6, 창작과비평사,

지로 포착된다.

칠복이가 입욕하기 전 얼마 동안의 그의 육체는 산 사람의 살이라기는 너무나 썩은 송장에 가까웠었다. 그의 사지와 몸뚱이는 전부가 흥측스럽게 찌그러지고, 아물러진 검푸른 목은 종처와 불그레하니 툭 솟은 끝이 녹두알 같이 노랗게 굵은 새 종처와 시꺼먼 때물은 고약 조각으로 덮여버리고 말았었다. 더욱이 그 보기만 하여도 진저리가 나는 다리를 걷어치고 앉아 날카롭게 깎은 성냥개비로 녹신 굵아서 물렁물렁한 종처를 딱딱딱딱하다가 신문지 조각을 대고 꼭 무르면 푹 솟쳐나오는 녹두비지 같은 누런 고름과 검붉은 피며 삼복 염천에 송장 썩는 것 같은 그 고약스런 냄새- (422)

아편쟁이 칠복의 존재는 송장 같은 썩은 육체의 이미지로 덮인다. 모르핀 주사기의 비위생적 사용으로 온몸에 잡힌 종기의 고약한 냄새와 누렇고 퍼런 고름의 이미지, 때 묻은 고약 조각과 목은 종기로 뒤덮인 육체 위에 새로이 ‘녹두비지 같’이 솟아오르는 고름과 피의 인상만이 ‘흥측스럽게 찌그러’진 채 존재하는 것이다. 아편쟁이 칠복의 육체에 대한 이 생생한 묘사는 죽은 인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괴물의 이미지를 아편쟁이에 덧대는 것으로 그 지나치게 정밀한 묘사가 오히려 비체¹⁶⁾로서의 매력을 가져온다. 칠복의 종기로 뒤덮인 육체는 혐오스러운 동시에 식민지 근대도시의 매혹과 탕진이라는 의미를 간직한 것이기도 하다. “옛날 박진사(칠복의 선친) 집의 호화롭던 부귀와 삼십 년이 채 못 간 오늘날 그 유족의 모진 영락”(419)이라는 이야기가 그 육체의 흔적에 새겨진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근대 문명의 향락에 빠진 식민지 청년의 모습을 대변한다. “그동안에 최씨부인의 주머니 속에 든 돈 구원은 그의 담뱃값, 군것질, 활

1989, 410쪽.. 이 글에서 「불효자식」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함)는 작품이다.

16) 비체(abject)란 혐오스러운 동시에 신비한 매력을 가진, 매혹과 반감이 교차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리처드 커니, 『이방인, 신, 괴물』, 이지영 역, 개마고원, 2004, 24쪽 참고

동사진 구경, 설렁탕, 전차샐시로 매일 일원씩 오십전씩 스실사실 다 없 어지고 말았다.”(428) 자본주의 근대 문명, 즉 담배와 군것질, 활동사진과 설렁탕은 식민지 청년들을 유혹하며 궁극적으로 그들은 아편에 매혹된다. 어떤 의미에서 아편은 자본주의 근대 도시의 향락과 소비를 집약한 대상 이다.¹⁷⁾ 칠복의 중독된 육체에는 무한정한 소비라는 탕진의 이미지 위에 부정한 자본의 흐름이라는 범죄의 이미지가 끼어든다.¹⁸⁾ 환각을 위해 돈을 무한히 탕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독자는 자본주의 사회의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제아무리 몸이 튼튼하고 마음이 얌전하다는 사람이라도 한 번 아편에 중독이 되어 몇 해 지나고 나면 육체는 눈뜬 송장이 되고 행신 은 개차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423)

혐오스러운 육체를 가진 아편쟁이 칠복은 그의 어머니에 대한 혐오까 지 불러일으킨다. 최씨부인의 얼굴은 “그와 동시에 칠복의 얼굴과 그 다 리를 걸어치고 앉아 아편주사를 하던 모양이며, 까치 뱃바닥 같은 흰 손 이 다시 서대문 감옥의 우중충한 붉은 담과 그 안에서 누렁 옷 입고 쇠사 슬차고 노역을 하고 있을 그의 죽어가는 듯한 형상이며-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주마등과 같이 연상”(418)케 한다. 강건하고 싸늘한 어머니를 그리는 「유맹」과 달리 칠복의 어머니 최씨부인은 “과연 세상의 가난과 고생은 혼자서 다 짊어지고 있을 듯이 야속하게도 초라하고 곤궁하게 보” 이는 존재로서 “모두가 일부러 것처럼 차리고 꾸미려 하여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긋지긋한 빈궁의 특수한 기운이 그 주위에 떠”(419)도는 모습이다. 즉 그녀의 모습은 늙고 초라하며 가난과 고생에 찌든 식민지의 하층

17) 일제강점기 기사들에서 아편은 마작이나 도박과 결부되거나 색주가, 브로커 집단 과 결부된 부정한 소비문화와 탕진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가령 「想像 맛갓 世上 京城의 다섯 魔窟」, 『별건곤』 23호, 1929.9에서는 ‘吸血鬼의 阿片窟’, ‘挾雜輩惰民 窟’ ‘색주가’ ‘뚜쟁이의魔窟’ ‘鬼神 파는 尊乃魔窟’을 열거하고 있다.

18) 김학균은 「사랑과 죄」에서 아편쟁이가 범죄자로 재현된다고 지적하며 박장례 역 시 경성 배경 아편중독자의 표상이 병자가 아니라 범죄자로 나타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분석에 동의하는 한편 하층민 중독자의 표상에서 병균 의 감염에 대한 공포와 혐오가 나타남을 밝힐 것이다.

여성으로 집약된다. 그런데 이러한 식민지의 하층여성으로서 그녀는 아들에 대한 광기어린 육친애를 보여준다. “늙으신 어머니의 특유한 자애”(419)가 중독자-범죄자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 육친애로 발현될 때 그것은 부도덕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그려진다.

“어이구 이 사람이, 말두 말소...(중략) 내가 그 꼴을 보다니..... 지상(妓生)년 반지 하나 갖다 껌혀먹은 죄루 그런다니 그것이 그리 큰 죄라구..... 도루 찾아주면 구만이지..... 애편 침질이사 제 돈 갖구 제 맘대루 허넌디 무슨 상관덜이여.....”(421)

그녀의 육친애는 아들의 범죄나 아편중독과 같은 부도덕에 눈을 감으며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진 아들의 육체를 그 자체로 사랑하는 광기로서 발현한다. 중독자이며 범죄자인 칠복과 무한한 육친애를 보여주는 어머니 최씨는 혐오스러움을 통해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정상적 윤리나 가치에 균열을 가져온다. 모두에게 “아편쟁이의 거짓말이란 참 엉터리가 없는 것”(422)으로 치부되는 칠복의 말을 유일한 진리로 믿고 따르는 어머니 최씨부인의 육친애는 자식의 교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부도덕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을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기에 특별한 울림을 갖는다. 그녀의 육친애는 부도덕하고 혐오스러운 것이기에 그녀는 아들과 같이 미움 받는 대상이 되고 만다.

이렇게 되고 난즉 “그 따위 자식은 뒤어지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지 않고 움탁움탁 가축을 하여 준다”고 최씨부인까지 주위 사람들의 동정을 잃고 미움을 받게 되었다. (중략) 그 칠복의 ‘그 얼굴’을 한번 보면 그이의 눈에서는 그만 눈물, 애처로와하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며 그 눈물에 먹었던 결심은 눈 굵듯이 풀려버리고 다만 가슴만 죽도록 안타까울 뿐이었다. 이것이 지극한 ‘어머니의 자애’ ‘절대의 사랑’이다.(430)

소설에서 최씨 부인의 육친애는 칠복의 증독과 같이, 아무리 모진 결심을 해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위험한 욕망이다. 「불효자식」은 하층민 어머니의 절대적인 사랑, 육친애에 대한 묘사를 통해 식민지 가부장제 근대 사회의 윤리나 정상적 삶의 질서에 균열을 일으킨다. 모두에게 혐오스러운 대상을 향한 절대적인 육친애를 과연 긍정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소설은 판단을 유보하며 혐오스러운 아편중독자의 육체를 품는 ‘절대의 사랑’, 광기의 육친애를 그리는 데 집중한다. 교화의 힘을 발휘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감싸 안는 광기의 모성, 육친애란 아무리 혐오스러운 모습이라도 그 자체로 감싸는 것인 동시에 오직 육친의 대상에게 발휘되는 절대의 힘으로서, 현실의 도덕과 법률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파괴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최씨부인의 모습과 행동은 식민지 지식인인 ‘나’의 비판적 시선과 대비할 때 그 가치가 두드러진다.

정상적 사회의 윤리와 가치를 벗어난, 그러나 절대적인 사랑의 힘은 지식인을 굴복하게 하는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채만식의 「생명의 유희」에서 아편중독은 착취계급이며 고등유민인 부르주아 중산계급, 특히 미두나 광산과 같은 투기에 탐닉한 식민지 중산계급의 운명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소설에서 부모는 증독자 자식에 대한 한없는 자애를 당연시한다.

“그렇잖기는 무엇이 그렇잖어요? 한 집안에 아편쟁이가 들썩이나 되고, 그런하면 번들번들 놀면서 부모 고생이나 되시게 허구..... 그런 자식들을 나 같으면 돌아다도 안 보겠습니다.”

“그렇려서야 부모 자식 새에 좋달 것이 무엇 있겠냐. 좋아도 자식 나저도 자식, 잘나도 자식 못나도 자식..... 자식한테 가는 정은 일반이지.....(중략) 인제 두구 보아라만 자식이 잘못될수록 애처럼구 불쌍한 맘은 더하느니라.”¹⁹⁾

소설에서 ‘못나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자애는 비판적 지식인조차도 고

19) 이 소설은 유고로 발표된 단편소설(1928.5.29 탈고)이다. 채만식, 「생명의 유희」, 앞의 책, 440쪽.

개 숙이지 않을 수 없는 절대적 것으로 그려진다. 자식이 낮고 비참하기 때문에 오히려 깊어지는 부모의 애정, 육친애의 절대성을 그림으로써 하층민 아편중독자의 표상은 단순한 혐오를 넘어 저항적이고 파괴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식민지 청년의 무능과 탕진, 중독을 돌보는 육친 애란 훈육의 폭력이 아니라 돌봄의 숭고를 형성한다. 혐오스러운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교정과 무관하고 혐오스럽기에 증폭되는 사랑을 통해 정상적 윤리와 사회의 가치마저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을 갖는 것이다.

3. 중독자 남편과 히스테리

중독자 아들에 대한 모성의 서사에 비해 중독자 남편을 둔 아내의 서사는 폭행이나 유기, 가정과외 등 아편중독자 범죄와 관련된 보다 다양한 갈등을 담고 있다. 하층민 중독자-배우자를 향한 교화나 돌봄은 실패하거나 무의미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가족에 대한 유기나 폭력을 날거나 무가치한 결말을 가져온다. 정비석은 「이 분위기」에서 중독자-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돌봄과 같은 무조건적인 보호가 중독자-배우자의 관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한때 팔십 노인의 셋째 첩이었던 옥채는 병립과 함께 도망해 북경에서 아편밀매업자로 살아가지만 아편중독자가 되어버린 남편을 버리고 도망친다. “병립은 옥채를보고 죄없는웃음을 한번히쭈욱 웃고나서 꺾병을 맛나게 먹으면서 코를 흘쩍 드리킨다. 어느 모로보면 천진스러워되는 이 병립의꼴이 지금은 한없이 옥채의기슴을 쓰라리게했다.”²⁰⁾ 천진한 병립과 그를 돌보는 옥채의 모습은 부부 관계라기보다 모자 관계처럼 그려진다. 옥채는 아이 같은 병립의 모습에 분노하기보다 동정을 느끼지만 육친애의 대상인 자식이 아니라 애육의 대상인 배우자이기에 그에 대한 무한정한 돌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20) 정비석, 「이 분위기」, 『조광』 제5권 1호, 1939.1, 354~355쪽.

중독자-배우자의 서사는 중독자에 대한 돌봄보다 그에 대한 교화나 처벌을 중심에 두고 폭력을 동반한 이야기로 나타난다. 가령 김남천은 「제퇴선」을 통해 모르핀중독에 빠진 기생 애인을 자식처럼 훈육하고 교정하는 지식인 남성의 사명감을 서사화한다.

향란이는기생이다. 더구나 유사마약이긴하나 일종의 「아편쟁이」다. 경호 자신도 어떤친구가 카페-여급과 지저분한 동거생활을하였을 때 그친구를 찾아가서 충고한일까지 있었다. 그러든 자기는 「아편쟁이」와 관계를 맺고 있다. (중략)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논 현실에대하여 항의 하는 방법은이불상한가련한여자를 옹호하고 그를 구해주는 것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 사랑 속에서 이를 완전한인간으로 돌려보내준뒤에는 자기의 사명은 끝난다.²¹⁾

지식인 남성 경호에게 중독자-애인 향란에 대한 돌봄과 교화는 주의자 활동을 대체하는 과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타락한 여인에 대한 단순한 동정이나 이해를 넘어 그를 구원하고 옹호하는 방법을 통해 아편쟁이를 양산하는 시대와 사회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수행한다는 주의자의 사명으로서 그녀와 ‘관계를 맺’은 것이다. 이 때문에 중독자-배우자에 대해 그는 선불리 동정하지도 않지만 아무런 혐오나 두려움도 보이지 않는다. 전향한 주의자라는 자기혐오를 극복하는 행위로서, 그는 중독자를 치료한 의사, 작은 사명을 실천한 지식인으로서 자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치료한 줄 알았던 향란이 모르핀을 주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순간 “소시민의 주관적양심이란 이런게다.”(289)라는 최후의 깨우침과 함께 그의 과업은 실패를 맞이한다. 그는 자신이 주의자의 사명감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느끼지만 이는 단지 ‘소시민의 주관적 양심’일 뿐이며, 30년대 후반의 사회에 주의자가 투항할 수밖에 없듯 자본주의 근대 사회의 어두움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21) 김남천, 「제퇴선」, 『조광』 제3권 10호, 1937.10, 280쪽.

「체퇴선」과 「이 분위기」가 중독자-배우자에 대한 훈육의 필연적 실패나 돌봄의 불가능함을 서사화한다면 「박명」은 중독자-배우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돌봄이 윤리적 가치와 결합한다 하더라도 무가치한 것임을 보여준다. 「박명」은 “일생을 통해서 듯고 본 중에 가장 거룩한 한 여성을 그려볼까”(555)²²⁾하는, “다만 한 사람의 인간이 다른 한사람을 위해서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끄까지 변하지 안코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면서 남을 섬긴다는 이 고귀하고 거룩한 심정을 그려보려는”(555) 의도로서 씌어진 다. 자신을 잊고 남을 돌보는 섬김과 희생의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위해 채택된 제재가 아편중독자 남편을 돌보는 아내의 서사이다. 소설에서 순영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이유로 중독자 남편 대철을 자식처럼 돌본다. 이러한 순영의 모습은 「불효자식」의 최씨부인과 유사하다. 함께 망해가는 한이 있더라도 돌보아야 한다는 희생과 헌신의 모성이 형상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편쟁이-아들을 돌보는 최씨부인의 헌신이 주변인에게 경멸당하는, 혐오스러운 행위인데 비해 아편쟁이-남편을 돌보는 순영의 헌신은 모두에게 숭고한 것으로 찬양된다. 이는 순영의 헌신이 최씨부인의 경우처럼 이기적이고 무조건적 욕망과 결부된 것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공양과 보은을 강요하는 봉건 가부장제의 윤리와 결부된 행위이기 때문이다.

순영은 날마다 날마다 그러한 일을 되풀이 되는 것이 인생 일대의 큰 경륜이요 큰 사업이었다. 순영은 그러는 동안에 닥치는 일이 하나도 쓰라리고 아프지 않은 일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만족한 듯하여서 이맛살을 찌푸린다든지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린 때가 별로 없었다. (중략)

“아이구, 저 닥네가 왔군. 병든 남편을 위하여 저렇게 고생을 하니 가엾은 일이지.”(502~503)

22) 「박명」은 한용운이 1938년 5월 18일부터 1939년 3월 12일까지 총 223회에 걸쳐 「조선일보」에 연재한 장편소설이다. 여기서는 한용운, 『박명-한용운문학전집 3』, 태학사, 2011에서 인용한다.

순영에게 있어 아편쟁이 남편에 대한 돌봄은 최씨부인과 같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체퇴선」의 주의자 박경호가 수행하는 과업이나 사명과 같은 윤리적 행위이다. 그녀의 희생과 헌신은 한없는 만족을 주는 윤리적인 것이어서, 사람들은 아편쟁이 남편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대신에 그녀의 헌신이 주는 숭고함에 찬사를 보낸다. 남편의 아편 중독은 주변에 손가락질 받는 부랑함이 아니라 ‘병든’ 것으로 이해되며 그녀의 행위는 밭살맞기보다 ‘가없는’ 동정의 대상이다. 병든 남편의 공양과 보은이란 봉건 가부장제 윤리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그녀의 돌봄은 중독자의 교화 여부와 관계없이 숭고한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서사의 결말에서 아편쟁이 남편 대철이 자신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녀의 윤리적 행위의 근거는 무의미한 것으로 귀결되고 만다. 즉 그는 아편쟁이 남편을 돌본다는 무의미에 보은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했으나 이는 거짓 믿음이며, 남편에 대한 공양이란 봉건적 윤리가 무의미하듯 그녀의 행위는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

아편중독자 남편에 대한 아내의 희생과 돌봄을 그린다는 점에서 강경애의 「마약」은 「박명」과 유사한 서사를 보여준다. 「마약」의 아내는 “급한 때면 언제나처럼 열리지않는 입술, 두 번문기가 어렵게 성내는 남편의 성질, 오물그리는 혀끝을 지긋이 놀”²³⁾어야 하는, 순종적이며 말하지 못하는 존재로서 가부장제의 희생양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는 「박명」의 주인공과 유사하다. 그러나 「박명」의 순영과 달리 그녀는 끊임없이 자식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의 모습을 그리는 강한 육친애를 나타낸다. 그녀의 육친애가 중독자 남편의 비정한 폭력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그는 남편을 따라가는 길 “꼭 보득의 숨소리같은 버레소리”를 듣고 “보득일 어쩔고” 하는 생각에 두려워하며 “비탈길을 나리니 보득일업고뛰고싶게길이 평탄하다”고 생각하고 “사분히 스치는 주단냄새에 보득의 저고리깁이라도 얻으면 싶”(41)어 한다. “문에 몸을 기대셨으려니 홀연 그의집 방문턱에 기

23) 강경애, 「마약」, 『여성』 제2권 11호, 1937.11, 40쪽.

어오르는 보득의 얼굴이 불쑥나타나고”(41) “겉에 보득이만 있다면 되는 대로 지내리란 생각도 때로는든다.”(42) “이어 보득의 출출마른 젖내 물 코름나는 입김이 불에 흑끈 타오르고 엄마를 부르고 왼방안을 헤매이다가 갈자리 가시에 그 조고만 발과 무릎이 상하여 피가 툭툭 흐르는 것이 눈에뜨렷하였다.”(42) “내가 딱딱질리고 내 애기는 지금뿔먹노! 이 때에 남는 과일쪽은 보득의살인 듯”(43) “흑끈일어나는 땀내에 보득의 기저귀 한끝이너풀 코끝에스치는 듯이 가슴에 번듯그린다.”(43) 중독자 남편에 의해 중국인에게 팔려가는 공포의 산길을 걸으면서, 팔려간 방에 감금된 채 겁탈을 당하면서도 그녀는 자기 아이를 보고 느끼고 그럴 뿐 현실에서 눈을 돌린다. 즉 그에게 아이에 대한 육친애는 중독자 남편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남편이 자신을 팔았다고 하는 비정한 현실에서 눈을 돌린 환각과 환상의 동인으로 작용한다.²⁴⁾ “새벽부터 남편이 자기를 이되놈에게 팔았는가하고 의문이 들었든 것이다. 하나 그것은 잠간이고 어제밤에 남편이 정령 집에갔는지, 여기어디서 죽지나않았는지, 만일 갔다더라도 보득일다리고 얼마나 애를 태울까하는 걱정이 따루어 일어난다.”(42) 그녀의 남편에 대한 환상은 그녀가 자식에 대해 갖는 육친애가 강하면 강할수록 떨칠 수 없는 미련이 되어 그녀의 죽음을 책동한다. 발가벗은 채 피를 흘리며 도망치면서 그녀는 오직 보득에 대한 육친애와 그만큼 강해지는 남편에 대한 헛된 기대를 품는다. “이줄을놓면 내애기내남편을 못만 나볼 듯 어쩐지그래생각이된”(44) 그녀는 “보득의 옆에 쓸어진남편 아편에 취해야 있을그 이제가면 부틀고 싫건울고싶다. 원망도 아무것도사라지고 오직 반가웁고 슬픔만이 이락이락 일어나는 것이다. 응당남편도 그를부틀고 사죄할것같다 꼭 아편도 떼일것같다.”(44) 그녀는 자신의 도망

24) 주의(attention)의 적은 환상(fantasy)이다. 환상은 맹목적인 자기중심적인 목적과 상상의 증식을 의미한다. 환상은 위안, 지배, 확대를 위해 맹목적으로 놓게 되는 지적이고 상상력을 구사하는 활동이다. 자신과 아이에 대한 비전을 일차적으로 환상으로 구성한 어머니는, 그 환상을 위해서 현실을 조직하며, 변덕스럽게 행동한다. 사라 러덕, 앞의 책, 202~203쪽 참고

을 통해 남편이 아편을 떼고 자신에게 사죄하며 아이 보듬과 함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환각을 붙든다. 이러한 환각이 그녀의 도망에 힘을 주지만 그것은 그녀의 피 흘리는 죽음만큼이나 허황한 환상일 뿐이다. 자식에 대한 미친 듯한 육친애의 힘이 압도할 때 그녀에게는 어떤 비판력도 생겨나지 않는다. 그녀는 남편에 대해 원망이나 분노조차도 보여주지 않는데 그것은 그 남편조차 자식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며 자식에 대한 극대화된 애정 가운데 모든 것이 용서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녀의 무의미한 육친애, 절대적 육친애란 비정한 현실이 개입하며 죽음으로 끝나고 만다.

「아가 여기 젖었다 머」

그는 허공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숲속에드러운 저 허공 남편의 초라한 옷 자락인가 팔짝 정신이 든다. 허나 아니었다. 그는 응하고 울었다. 그리고 기여라도볼까 다리팔을 움직이다 그만 쓸어진다.

아가 아가..... 어쭈 일어나봐..... 흥제남편은 어찌된줄 알고 이제 등록된 아편쟁이가 될지 어떨지..... 고요히 숨이끈어지고만다.(45)

그는 죽음의 순간에야 현실을 환상과 분리하며 자신이 중독자 남편 때문에 죽어감을 인지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편에 대해 냉소하지만, 그 순간에도 아이에 대한 육친애의 집착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그녀의 희생은 등록된 아편쟁이를 낳을 뿐 그 아이를 위해 어떤 것도 해주지 못한다. 배고파 우는 보듬의 환영을 보며 그녀는 최후를 맞이한다. 아이를 양육하는 젖과 등록된 아편쟁이 남편의 무의미한 소비가 대비되며 그녀의 희생은 무의미한 환멸을 자아내게 되는 것이다. 중독자의 무한한 소비, 탐닉과 부딪칠 때 어머니의 육친애란 한없이 순결한 것이면서 또한 한없이 비루한 것이 된다.

돌봄을 구현하는 「마약」의 아내가 단지 희생할 뿐 중독자 남편을 향해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는 반면 최정희의 「곡상」에서 아내는 남편의 중독

을 알게 된 순간 그것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교정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최정희의 「곡상」과 강경애의 「마약」은 아편중독자 남편에게 고통 받는 아내가 자식 또는 남편에 대한 환상 가운데 현실을 왜곡하고 폭력적 결말을 맞이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폭력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효과가 무엇이며 중독자 남편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과 돌봄만을 보여주는 「마약」과 달리 「곡상」에서 어머니 남이와 아들 문수의 관계에는 애정과 훈육, 폭력이 혼재한다. 문수는 어머니 남이의 일을 도와주면서도 연신 “어머니의 이런 기색을 살”²⁵⁾피는 방식으로 주눅이 들어 있다. 이는 어머니의 폭력이 언제 자신에게 가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남이의 분노는 만주에서 돈을 벌 어오겠다고 떠나갔다 오던 만에 “작년 여름 바로 이맘때 돌아”(397)온 중독자 남편에 대한 복수심에 기원한다. “문수를 잘 키워서 남편의 복수까지 하리라.”(396) 아편중독자로서 몰락한 남편에 대한 기대가 깨어질 때 그녀는 가정을 파괴하는 대신에 아이를 때린다. 충실하던 남편이 만주생활 5년만에 중독자가 되어 돌아온 데 따른 기대의 배반이 그녀에게 과도한 폭력과 히스테리를 자아내는 것이다.²⁶⁾ 그녀는 지나치게 결벽을 추구하며 문수의 사소한 행동에서까지 남편 인표와 닮은 구석, 즉 부도덕한 구석을 발견함으로써 폭력을 가하는 처벌의 히스테리를 발휘한다. 남편이 부랑하고 부도덕하면 할수록 아들에 대한 그녀의 환상과 히스테리 역시 강해진다. 즉 그녀는 남편이 아편중독, 거짓말, 도둑질 등 온갖 윤리를 배반해가는 데 정확히 대응해 부도덕한 아들의 환상을 발견하며 처벌을 가하는, 훈육적 모성의 히스테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처참한 모양을 한 문수의 모양은 꼭 인표의 초라한 모습 그대로였다. (중

25) 최정희, 「곡상」, 『정통한국문학대계 13-최정희』, 어문각, 1994, 393쪽.

26) 히스테리란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린 여성이 광기 또는 증얼거림과 같은 몸 언어로서 발언하는 양식으로서 단순히 위장된 광기가 아니라 연출되는 욕망이다. 임옥희, 「히스테리: 여성의 육체 언어/권력/욕망」,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2003, 96~97쪽 참고

략) 이런 까닭에 남이는 늘 다른 어머니 이상으로 아들에게 대한 관찰이 컸다. 아들의 일거일동에 주의를 다했다. 그것은 인표와 같은 데가 사랑하는 아들 문수에게는 없기를 바라면서, 그러다보니 결과는 오히려 문수가 인표와 같은 데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과 같이 되어버렸다. (중략) 남편에게 대한 절망과 증오가 크면 클수록 아들에게 가는 애정은 더 지극해갈 뿐이었다. 남이가 인표로 해서 일어나는 울화를 문수에게 하는 것도 이런 정비례적 작용에서 생기는 결과일 것이다.(394)

「곡상」은 아이러니로 점철된 소설이다. 아들 문수가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 노력하면 할수록 그것은 어머니의 분노를 키운다. 또한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무시무시한 폭력을 동반하게 된다.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의 깊은 관찰은 제도적 검열로 작용하며 그 속에서 아버지와 닮은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중독자 아버지와 착한 아들은 환상 속에 동일시되며 이에 대한 교정 또는 처벌로서 아들에게 매질이 가해지는 것이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깊을수록 그에 대한 폭력도 커진다는 아이러니, 사랑하기 때문에 교정해야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윤리적 규제가 강조되며 처벌하는 어머니의 폭력이 공포스럽게 자리하게 된다. 남편에 대한 분노를 아들에게로 전이하면서 채찍질을 가하는 「곡상」의 모성 서사는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윤리에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유맹」의 모성 서사와 같은, 계몽적 교정의 서사인 동시에 그 지나친 폭력성으로 인해 교화가 아니라 파괴와 죽음을 낳는다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두서도 없는 신경질을 늘어놓으며 어깨짐, 대가리, 아랫도리 할 것 없이 함부로 때렸다. 그것은 누가 보든지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없으리만큼 지독한 매질이었다.”(395) 단지 아버지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에게 가하는 매질은 가혹하며 훈육이기보다 폭력이며 히스테리이다. 이러한 폭력과 히스테리로밖에는 가부장제 사회 속 희생하는 여성의 저항을 나타낼 방법이 없는 까닭이다. 즉 문수에게 가하는 매질은 기대를 품었으나 실망만 안기는 아

편쟁이 남편에게 가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며 나아가 가부장적 윤리에 저항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매질을 가한다는 모순, 남편에 대한 아내의 기대가 결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이 반복되며 그 실망이 커질수록 아이에 대한 폭력 역시 커진다는 모순과 아이러니 속에 소설 속 불행이 내포되는 것이다.

소설에서는 아들을 교정한다는 이유로 가하는 어머니의 무시무시한 폭력과 아편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고야 마는 중독자 아버지의 부도덕이 결합해서 아들 문수의 죽음을 가져온다. 그런데 중독자의 부도덕과 어머니의 히스테리적 도덕은 서로 닮은꼴을 하고 있어서, 아버지의 부도덕에 정비례해서 어머니의 도덕 역시 강해진다. 도덕과 부도덕이 정비례한다는 모순은 자본주의 사회 속 ‘돈’ 이외에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일상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지난번 주일 강담시간에 들은 「산드룡의 유리구두」란 이야기와 같이 자기 어머니는 계모인가보다고”(396) 오해한 10세 아들 문수의 세계, 「산드룡의 유리구두」의 세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것은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의 어둠이며, 아편과 자본에 대한 무조건적 욕망이다. “도덕과 윤리와 인정과 체면을 다 모르는”(405) 아편을 구하기 위해 자식을 파는 아버지의 부도덕은 “세상일-뚝바른 세상에 산다는 사람들도 결국은 제 살 방도를 꾸미느라고 남을 해하는 일이 있지 않은가-제 발들의 불부터 꺼야 한다는 말도 이러한 세상이라 생긴 것이리라.”(405)처럼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의 왜곡된 현실논리로 보편화된다. “돈이라면 아편쟁이 아편 한 대 맞기 위해서 온갖것을 버리듯” “돈을 얻기 위해서 생명이라고 내걸고 덤비”(406)는 존재로서 아이를 팔아먹는 노파도, 그 아이를 사서 간을 빼먹는 문둥병자 과부도 식민지 자본주의 근대 사회의 논리 가운데 지극히 정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의 어둠에 눈을 돌린 채 가부장제 근대 사회의 윤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훈육하는 「곡상」의 어머니는 가부장제의 시선을 강박적으로 흉내낸다. 그녀의 매질은 가부장제 사회의 윤리에 대한 과잉 모방을 통해, 즉 과도한 훈육을 통해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한다.

이처럼 중독자-남편을 둘러싼 서사에서 모성은 돌봄보다 훈육의 의미를 강조하며 폭력적 서사와 죽음의 이미지를 가져온다. 일제 강점기 아편 서사에서 어머니는 중독자에 대해 개심을 유도하거나 훈육하는 존재로서보다 중독자에 대한 절대적 사랑과 돌봄의 양육행위를 통해 더 큰 울림을 갖는 존재로서 등장한다. 교화조차도 과잉된 폭력을 나타내며 죽음과 결합할 때, 무조건적 돌봄의 어리석음이나 혐오가 사회의 정상적 질서에 대한 강박보다 더 유의미한 것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유의미한 모성으로서 훈육이 아니라 돌봄의 행위를 발견할 때, 중독자 어머니의 서사 역시 돌봄을 중심으로 그 의미가 재편될 수 있다.

4. 중독자의 모성과 파시즘

“적계는 一身一家를 망치고 크계는 一國家 一民族을 망치는”²⁷⁾ 존재로 호명되는 아편쟁이가 모성과 결합할 때, 아편쟁이 어머니는 더러운 존재로서 전략과 혐오를 대변한다. 아편쟁이 어머니의 더러움은 자식의 혈관을 흐르는 ‘피’의 더러움을 환기하는 동시에 어머니에게 접촉함으로써 더러움에 감염된다는 인식으로 나아간다. 「곡상」에서 어머니 남이가 아버지의 중독이나 부도덕함을 아들의 얼굴에서 발견하며 이를 매질하듯, 중독이나 유전, 감염의 이미지는 부모인 중독자의 ‘피’에 대한 공포, 더러운 피의 유전과 중독의 감염에 대한 공포와 혐오로서 서사화된다.

염상섭의 「사랑과 죄」에서 아편중독자는 혐오스러운 구경거리로서 등장한다. 지순영은 성병환자 거지를 발견하고 혐오하면서 그의 모습에서 아편쟁이인 친모 해죽집을 연상한다. “순영이는 자기가 그 거지를 들여다볼 제 여러놈들이 낄낄대이든 소리가 귀에 다시금 소스라쳐 떠올오자 얼굴이 또 한 번 발개졌다. 그것은 자기 어머니라는 이나 자기 처디를 비웃

27) 南隊記者 石火生, 『顯賞讀物 南北隊 競爭記事, 殺人魔, 自身鬼 阿片窟 大探查記, 烈風酷寒七晝夜에 單身으로 冒險大探查』, 『별건곤』 4호, 1927,2, 64쪽.

는 우습 갖타야 가슴이 뜰금하고 무서웠다.”²⁸⁾ 순영이 자신의 아편쟁이 친모에 대해 느끼는 것은 혐오이며 운명의 유전과 중독의 감염에 대한 공포이다. “해줏집으로서는 절박한 경우에 유일한 피난처가 「에미 라는 한 마대이지만 순영이는 언제 들으나 이 「에미 라는 소리가 마치 죄수의 두 손목에 자그락하고 채어 주는 수갑 소리가치 소름이 끼치었다.”(161) 순영에게 해줏집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실제로 자신을 타락시키는 더러움으로서 환기되며 자신의 핏속에 흐르는 더러운 운명을 연상시킨다. 아편침 제구를 늘어놓고 보는 사람마다 아편을 권하는 해줏집의 모습은 아편에의 접촉, 접근이 가진 파멸의 운명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20년대 식민지 도시 경성의 음험함을 대변한다. 그녀와 가까이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피에 감염되며 중독자가 되거나 범죄자가 된다.

「사랑과 죄」에서는 피의 유전과 감염이라는 혐오의 이미지와 함께 일제 강점기 민족적 전략의 의미를 아편쟁이의 육체에 부여한다.

심부위라면 옛날의 시위대부위로 장안에서도 한다한 오입장으로 한때는 드날릴 때도 잇섯드니라. (중략) 그러나 아편침에 신세를 마치고 나니 한양 말년에는 업지 못할 한 조그마한 대표덕 인물이 된 것은 저자신도 몰르드니라. 좀 추잡한 말 갖지만 일신이 궁축하면 몸에 정치 못한 버레가 꼬이는 법이라 한 나라 한 사회가 망하고 궁하면 이 따위 버레도 꼬이는 것이니라.(420~421)

유명한 기생으로 고관대작의 첩이었던 해줏집이 아편쟁이 범죄자로 전락하듯 유명한 아편쟁이 심부위의 사연은 오입쟁이가 아편쟁이로 몰락해 가는 과정을 집약해 보여준다. 서술자는 이를 ‘한 나라 한 사회가 망하고 궁’하는 현실과 결합한다. 해줏집을 비롯해 소설 속 아편쟁이들은 민족의 운명을 둘러싼 더러움, ‘벌레도 꼬이는’ 현실을 암시한다. 아편쟁이의 탄

28) 염상섭, 「사랑과 죄」, 『염상섭 전집』 2, 민음사, 1987, 20쪽.

생과 나라의 패망이라는 현실이 결합하는 가운데 피를 더럽히는, 감염과 유전의 공포와 관련된 어머니의 더러운 피라는 논리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서사를 가로지르는 것이다.

40년에 발표된 김사량의 「지기미」는 혈통의 유전이나 병균의 감염이라는 이미지를 역전해서 민족의 운명적 동질감으로 아편중독자의 서사를 재편한다. 즉 「지기미」에서는 아편이 ‘적게는 일신일가를 망치고 크게는 일국가 일민족을 망’친다는 논리를 뒤집어 ‘민족의 전략이 중독자를 낳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중독자로서 ‘피를 공유하는’ 동족을 어머니처럼 돌본다는 역설을 서사화한다. 「지기미」는 조선이주민 사회 내부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그들을 돌보는 아편중독자 노인 지기미의 모습을 대조함으로써 하층민 중독자 노인의 돌봄이라는 흥미로운 서사를 나타낸다. 시 바우라(芝浦) 해안 “각지방서 온 뱃집(주로 石炭집)을 푸는 일을 하는 오끼나까시(沖仲仕)”²⁹⁾로서 함바집에서 새우잠을 자고 새벽부터 늦게까지 “12시간의 고된인 勞動”(260)에 시달리는 조선인 이주민들을 돌보는 아편쟁이 노인 지기미는 그들에게 ‘힘오스러운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지기미는 阿片쟁이로 벌써 나이 60인데 게다가 키는 헛말노 9尺이나 됨으로 아메리카 바람이 사나올 때는 몸이 부러질 듯이 회친거린다. 그러나 지기미는 늘 마라손 選手처럼 두 주먹을 가슴에 안고서 헐떡거리며 분주히 다닌다. (중략) 지기미기로서니 처음부터 체이름이 없었으라마는 이 때문에 이름이 지기미가 되고 말았다.(260)

비쩍 마른 몸을 부러질 듯 휘청거리며 거친 부듯가와 함바집을 돌아다니는 아편쟁이 영감 지기미는 이름조차 상실한 존재, 고향과 근원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낙오자로 설정된다. 고향도 이름도 갖지 못한 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징표는 조선인이란 것뿐이다. “지기미는 이 苦役

29) 김사량, 「지기미」, 『삼천리』 13권 4호, 1941.4, 260쪽.

을 하는 사람들 區域에 살면서까지 天涯孤獨한 인간이다.”(261) 아편쟁이 노인이며 이름과 고향과 가족을 상실한 존재로서 지기미는 조선인 이주민을 자식처럼 보살피는 것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그러나 아편쟁이로서 그는 「사랑과 죄 의 해죽집이 그 딸 순영에게 감염과 유전의 혐오와 공포를 가져오는 존재이듯 그가 돌보는 이들에게 혐오스럽게 인식되는 존재이다. “거기 사람들은 지기미같은 영감은 이 世上이 한번도 필요로 하지 않는, 외려 조선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存在라고 생각한다.”(261) 그럼에도 같은 ‘동포’로서 자기를 확인할 수 있기에 그는 이역의 동포에게 밥을 먹이고 인사를 하고 안녕을 기원하며 병자를 돌보고 광기까지 돌본다. 이름조차 잃고 경멸받는 아편쟁이 영감 지기미는 이주민 노역의 현장에서 그들을 돌보는 역할, 돌봄의 어머니로서 자리한다. 그는 “朝鮮밥장사 집 부엌안에서” 지내면서 “밥짓는 일을 도와”(261) 주고 “누가 깨워 달내서 그러는 것도 앓이고, 단지 지기미는 제가 얼마나 그들의 필요한, 없어서는 안될 人物인가를 알리고저 하”(262)는 생각에 노동자들을 깨우러 다닌다. 그는 동포를 돌보며 고향, 그것도 어디라 지칭되지 않고 막연히 현해탄 건너 경상도를 그리워한다. 혈연을 대체하는 민족, 동족이란 피의 공유가 모성의 돌봄을 일으킨다.

지기미는 옛날 靑年時節엔 韓國兵丁이었다. 兵丁도 正尉였드라 한다. 그래 그런지 『화-잇 화-잇』하는 소리에는 목이 갈닌 듯하면서도 쇠소래 쟁쟁한 서슬 푸른 데가 있다.(중략) 지기미는 窓문안으로 머리만 개웃이 드리밀고 『어디 아픈교』 『어디 아픈교』한다. 누어 알는 사람들은 눈을 거섬츠레 뜨고 쳐다본다. 지기미는 慰安을 주려는 듯이 희희 웃어보이며 阿片을 먹으면 진작 낡는다는 말을 한다. 그러면 모두들 벌떡 일어나며 아무 것이나 집어서 찰냐고 한다.(282~263)

원세개의 군대와 싸우느라 생긴 상처를 간직한, 구한국 정위였다는 지기미의 과거는 현재의 전략과 비교되며 아편중독자로서의 전략 과정과 일

제의 식민지배라는 현실적 문맥을 대응시킨다. 그의 전략에는 국가의 상실과 거주지의 상실, 지위와 가족과 이름의 상실이라는 문맥이 함께 하게 된다. 이러한 전략 과정의 끝에서 지기미는 이주민 동포에 대한 돌봄을 통해 그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하며 그들을 돌본다는 욕망 때문에, 보호와 양육을 위해서 역설적으로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아편을 권한다. 그에게 아편은 영약으로, 위안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되는 까닭에 그는 돌봄을 위해 아편을 권한다. 교화가 아니라 함께 전략함으로써, 아편을 피움으로써 불우한 현실의 고통을 잊고 살아가게 한다는 돌봄의 역설은 40년대 시대 상황 속에서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 아편이 민족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망국이 아편쟁이를 만든다는 진상을 드러낼 때 역설적으로 아편쟁이 지기미는 망국의 영웅이며 혐오스럽기에 숭고하다.³⁰⁾ 아편을 권함으로써 돌봄을 수행한다는 역설, 하층민 노인 중독자의 돌봄이 이주민 조선인 집단을 보호한다는 데서 빛어지는 역설이 숭고함을 낳는다.

아편의 권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층민 중독자의 돌봄이라는 역설적인 숭고가 가진 의미는 비슷한 시기 만주 조선인 사회의 타락과 지식인의 혐오를 서사화하는 「이 분위기와 비교할 때 그 가치가 분명해진다. 「이 분위기」는 “대학을 중도에 퇴학하고 사회운동에 오년동안 몸을 받쳤던일이있는 지준”이 “소화 삼사년이후 사회운동이 쇠멸기에 돌아오자 그곳을 나”³¹⁾와 “북지에와서도 체생활은 역시 룬펜밖에 아모것도 아니라고 깨”(357)달으면서 북경의 동포 사회를 부랑한 집단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하긴 그렇기도 할 것이다. 여기온 사람들은 이름이조선인지 그실은 고향을잃어버린 종속없는 집씨들이 아니든가?”(369) 아편쟁이 노인 지기미가 조선 이주민에게 동질감을 갖고 돌봄의 적극성을 발휘하는 반면, 지식인 지준은 북경의 동포사회에서 이질감만 느끼고 환멸을 토

30) 숭고함은 미가 안겨주는 쾌감과 기괴성이 불러일으키는 혐오감 사이의 경계선상에서 발생한다. 장-뤽 낭시 외 7인, 『숭고에 대하여-경계의 미학, 미학의 경계』, 김예령 역, 문학과지성, 2005, 248쪽.

31) 정비석, 「이 분위기」, 『조광』, 1939.1, 357쪽.

로한다.

무슨민족적인 긍지를 가지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껏 여기까지와서 불상모양인 동포를 보았다는 것은 그지없이 불쾌한일이었던 것이다. 허나 그건 그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이 북경의-아니 대륙의 침체한공기의 탓인 것만같았다.(중략)

「日支衝突!」

노코구에서 일본군과 지나군이 정면충돌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아! 드디어-」(중략) 지준의 눈은 오래간만에 찬란히 빛나, (378)

지준은 “이것이 대륙이던가?”(372)하는 회의 가운데 하층민 중독자의 돌봄이 아니라 제국 침략자의 전쟁과 파괴를 통해 희망을 품는다. 즉 일본의 대륙침탈을 부정한 밀매업에 빠져있는 조선인, 모르히네에 중독된 중국인을 구원하는 힘으로서 간주하며 환희하는 것이다. 지준에게 북경의 조선인과 아편중독은 일본의 중국 침략이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유로서 작용한다. 그는 북경 조선인에 대해 민족적 동질감 대신에 이질감과 경멸을 느끼며, 아편에 중독되는 대신에 침략자의 폭력을 받아들인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아편중독자 서사에서 지식인의 개조 욕망이 친일과 제국의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라면, 하층민 중독자의 돌봄은 그 논리에 균열을 내며 저항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포와 매혹, 혐오를 대변하는 대상으로서 아편과 아편중독자의 표상은 일제강점기 다양한 소설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하층민 아편중독자의 표상은 돌봄이나 훈육의 모성과 결부된 서사로서 나타난다. 훈육하는 어머니는 가부장제 근대 사회의 논리를 일방적으

로 강요하는 존재로서 「유맹」에서 엄격한 어머니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가부장의 목소리를 빌어 훈육을 강조하는 「유맹」의 서사에 비해 「불효자식」은 무조건적 돌봄의 육친애를 바탕으로 중독자와 모성의 서사를 펼쳐 보인다. 혐오의 대상, 부랑의 대상을 향한 절대적 육친애는 식민지 근대 가부장제 자본주의 현실 논리를 훈육하는 모성애와 달리 저항의 지점을 구성하게 된다. 중독자 남편과 모성의 서사는 훈육을 중심으로 폭력적 결말을 가져오는 서사로 집약된다. 강경애의 「마약 과 최정희의 「곡상」은 중독자 남편을 둘러싼 아내의 서사로서 자식에 대한 과도한 육친애와 과잉 모방된 훈육을 서사화한다. 「곡상」의 아내가 중독자 남편에 대한 처벌로서 자식에 대한 왜곡된 폭력과 윤리적 히스테리를 보여준다면 「마약」의 아내는 아이에 대한 지극한 육친애로 인한 환상과 무의미한 희생을 보여준다. 훈육이나 교정이 일제강점기 가부장 사회의 논리를 강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볼 때, 중독자 모성의 서사는 아편을 권하는 혐오를 통해 돌봄의 숭고를 구현한다. 김사량의 「지기미 는 아편중독자 노인이 아편을 권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돌봄이라는 모성의 자질을 발휘하는 서사를 보여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하층민 아편중독자의 표상은 모성과 결부되는 가운데 혐오스러운 육친애와 폭력을 낳는 히스테리, 중독자의 돌봄이라는 역설을 통해 식민지 가부장제 근대 사회의 정상성에 균열을 가져오는 다양한 서사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강경애, 「마약」, 『여성』 제2권 11호, 1937.11
김남천, 「체퇴선」, 『조광』 제3권 10호, 1937.10
김사랑, 「지기미」, 『삼천리』 13권 4호, 1941.4
염상섭, 「사랑과 죄」, 『염상섭 전집』2, 민음사, 1987
정비석, 「이 분위기」, 『조광』 제5권 1호, 1939.1
채만식, 『채만식전집』 6, 창작과비평사, 1989
최정희, 「곡상」, 『정통한국문학대계 13-최정희』, 어문각, 1994
한용운, 『박명-한용운문학전집 3』, 태학사, 2011
현경준, 「유맹」, 『한국소설문학대계』 25, 동아출판사, 1995
현경준, 「도라오는 인생」, 『20세기 중국 조선족 문학사료 전집 6』, 중국조선
민족문화예술출판사, 2004
기타 「별건곤」, 「신민」, 「조광」 등

2) 단행본

- 박강, 『20세기 전반 동북아 한인과 아편』, 선인, 2008, 110~112쪽.
임옥희, 『폐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2003, 35~39쪽.
리처드 커니, 『이방인, 신, 괴물』, 이지영 역, 개마고원, 2004, 24쪽.
베리 밀리건, 샌더 길먼 외, 『흡연의 문화사』, 이수영 역, 이마고, 2006, 187~
190쪽.
마이크 헤스킨스, 『마약』, 이민아 역, 뿌리와이파리, 2005, 10쪽.
사라 러딕, 『모성적 사유-전쟁과 평화의 정치학』, 이해정 역, 철학과현실사,
2002, 143~181쪽.
장-뤽 낭시 외 7인, 『송고에 대하여-경계의 미학, 미학의 경계』, 김예령 역,
문학과지성, 2005, 248쪽.

3) 논문

- 김학균, 「『사랑과 죄』에 나타난 아편중독자 표상 연구」, 『국제어문』 54, 2012, 365~387쪽.
- 노상래, 「헤테로토피아, 제3의 눈으로 읽는 만주」, 『인문연구』 70, 영남대인문학연구소, 2014, 1~48쪽.
- 남춘애, 「해방 전 중국 유이민 소설에 나타난 아편의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7, 2007, 399~418쪽.
- 박장래, 「경성 배경 아편 서사의 인물과 공간 표상」, 『서울학 연구』 13, 2013.11, 1~42쪽.
- 서은주, 「만주국 재현 서사의 딜레마, 혹은 해석의 난경」, 『한국근대문학연구』 22, 2010, 231~263쪽.
- 신정은, 「현경준 작품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과 대응양상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8, 2011, 111~143쪽.
- 오상순, 「표면구조에서의 국책 선전과 심층구조에서의 허구성 비판」, 『현대문학의 연구』 36, 2008, 87~110쪽.
- 이경훈, 「아편의 시대, 아편쟁이의 시대」, 『사이間』 4, 2008, 263~290쪽.
- 이선옥, 「협화미담과 금연문예에 나타난 내적 갈등과 친일의 길」,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 2004, 12~54쪽.
- 조진기, 「만주이주민의 현실왜곡과 체제순응」, 『현대소설연구』 17, 2002, 207~227쪽.
- 차성연, 「현경준의 『유맹』 연구」, 『한국문학논총』 53, 2009, 437~456쪽.
- 차희정, 「현경준 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회복과 공간의 의미」, 『한중인문학연구』 40, 2013, 21~45쪽.
- 표언복, 「타락한 시대의 타락한 글쓰기 방법」, 『현대문학이론연구』 47, 2011, 339~369쪽.

Abstract

The Representation of a Subaltern Opium Addict in the Korean Novels at the Colonial Age

: From View Point of the Maternity

Kim, Jue-Le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presentation of a subaltern opium addict in the Korean Novels after 1920s especially from the relation with maternity. We show and value a mother's blood relative love to her opium addict child, a woman's violence to her opium addict husband and a mother's hysteria and the sublime maternity of a subaltern opium addict's in the novels at the colonial age. Apart from a maternal affection which contributes to the order of patriarchy with a mother's discipline, a mother's care to her child becomes blood relative love. And Chae, Mansik's 「an undutiful son」 shows a mother's disgusting blood relative love to her opium addict son. The maternity put more stress a mother's discipline than a mother's care and shows a violent narratives and the images of death in the narrative about a subaltern opium addict husband like Choi, Jeong-hei's 「Goksang and Gang, Gyeong-ae's 「Drugs . Kim, Sa-ryang's 「Zigimi」 paradoxically shows a sublime maternal narrative that an old subaltern opium addict cares his brethren like their mother with inviting to opium addiction. The representation of a subaltern opium addict related to the maternity in the Korean novels at the colonial age shows various narratives that break up the normality of a colonial modern patriarch society with the paradox as a disgusting blood relative love, a violent hysteria and a subaltern opium addict's care.

Key words : Representation of a Subaltern Opium Addict, Maternity, Blood Relative
Love, Hysteria, Disgust and Sublimity

■ 본 논문은 2016년 11월 12일에 접수되어 2016년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6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